

의안번호	제 17 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 결의안

제안자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22년 7월 22일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17
----------	----

제안연월일 : 2022. 7. 22.

제안자 :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주 문

- 충청권 공동의 중대 현안인 메가시티 건설과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는 시기에, 충청권의 상생과 화합을 가로막고 갈등만을 조장할 뿐인 KTX세종역 신설에 반대할 것을 결의함.

제안이유

- 오늘의 충북은 세종을 포함하여 대전·충남과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
- KTX세종역 신설은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이 없고, 사회적 합의에 반하며 정부 정책방향에도 역행함. 또한 천문학적 건설비를 투자한 고속철도에 비하여, 서울에서 세종청사 사이 이동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오히려 역간거리를 지나치게 줄여 저속철로 전략하게 될 것이며, 역사 예정지 또한 공간이 협소하여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한 곳임.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KTX세종역 신설에 반대할 것을 결의함.

- 보내는 곳 : 대통령실(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시장,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장, 충청남도의회 의장, 충청남도지사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 결 의 안

우리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깊은 논의 끝에 국토의 균형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상생·화합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오늘의 충북은 세종을 포함하여 대전·충남과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현안에 힘을 합쳐야 할 시기에 세종시는 KTX세종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또다시 충청권 내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KTX세종역 신설은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므로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정부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일관하여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KTX세종역 신설은 천문학적인 건설비를 투자한 고속철도에 비하여, 서울에서 세종청사 사이 이동시간을 줄이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오히려 역간거리를 지나치게 줄여 저속철로 전략하게 될 것이며, 역사 예정지 또한 공간이 협소하여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반면에 KTX오송역은 최근 이용객 수 8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전국 8위 수준의 이용객 수를 기록하여 행정수도 관문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KTX세종역 신설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충청권 공동의 중대 현안인 메가시티 건설과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는 시기에, 충청권의 상생과 화합을 가로막고 갈등만을 조장할 뿐인 KTX세종역 신설에 결사 반대한다.

2022. 7. 22.

충청북도의회